

🔇 |사 대통령직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날 >

Q



뉴스홈 | **최신기사**

이승엽, 무안타..요미우리 완봉패

송고시간 | 2008-11-05 21:16









이충원 기자

이승엽, 무안타..요미우리 완봉패

(도코로자와<日사이타마현>=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의 방망이가 침묵한 가운데 요 미우리가 완봉패 치욕을 당했다.

이승엽은 5일 일본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 세이부돔에서 계속된 일본프로야구 세이부 라이온스와 일본시리즈 4차 전(7전4선승제)에서 네번 타석에 들어섰지만 상대 선발 기시 다카유키(24)에게 삼진을 세 번이나 당하며 무안타에 그 쳤다.



이승엽 등 중심타선의 침묵 속에 요미우리는 0-5로 무릎을 꿇고 일본시리즈 전적에서 2승2패 동률을 이뤘다.

변함없이 5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출장한 이승엽은 2회 첫 타석부터 낮은 체인지업 변화구에 방망이를 휘두르며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0-1로 끌려간 4회초 2사 2루 찬스에선 높은 직구를 참지 못하고 방망이를 휘둘렀고, 7회엔 다시 낮은 변화구를 치려다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9회초 네번째 타석에선 간신히 공을쳐 내긴 했지만 1루수 앞으로 힘없이 굴러가는 땅볼이 됐다. 일본시리즈 4경기 성적은 15타석 안타 1개, 볼넷 3개에 그쳤다.

요미우리가 세이부 4번 타자 나카무라 다케야의 연타석 투런포 앞에 힘없이 무너져내렸다.

1회부터 연타석 안타를 얻어맞으며 1점을 내준 요미우리 선발 세스 그레이싱어는 2, 3회는 삼자범퇴로 막아냈다. 하지만 4회 선두타자 나카지마 히로유키를 몸에 맞는 볼로 내보낸 데 이어 나카무라에게 왼쪽 관중석 상단에 맞는 비거리 140m짜리 큼지막한 2점 홈런을 두들겨맞고 0-3으로 끌려갔다. 6회 선두타자 나카지마를 내야 안타로 내보내더니 나카무라에게 똑같은 코스로 다시 투런 홈런을 얻어맞았다. 퍼시픽리그 정규리그 홈런왕(46개) 나카무라의 홈런 쇼는 일본시리즈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다.

반면 요미우리 타선은 세이부 프로 2년차 우완 정통파 선발 기시에게 9회까지 산발 4안타로 꽁꽁 묶이며 점수를 내지 못했고, 삼진만 10번이나 당했다. 오가사와라 미치히로는 볼넷을 한번 얻긴 했지만 3타수 무안타에 그쳤고, 알렉스 라 미레스도 4타수 무안타로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

요미우리와 세이부의 일본시리즈 5차전은 6일 오후 6시15분 세이부돔에서 계속된다.

cany99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11/05 21:16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 등 징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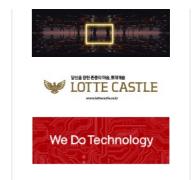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봄소식...오래 기립박수 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당신이 돌아할 만한 끈댄스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뜴 결국 우크라에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美와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35 찰에 고발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 60 대병원 자원봉사

3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뭐하고 놀까? ##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

테미벌뉴스 핫뉴스 톰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강 영문연강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광고** KTX.열차 AREX.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뉴스
 모바일앱
 모바일앱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ی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메스 한민족센터 K결정기회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Yonhapne